

##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주최**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기획** | 미디어교육팀 방제만, 허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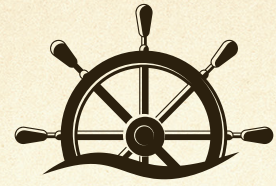
**제작** | Thinkgood

이 사례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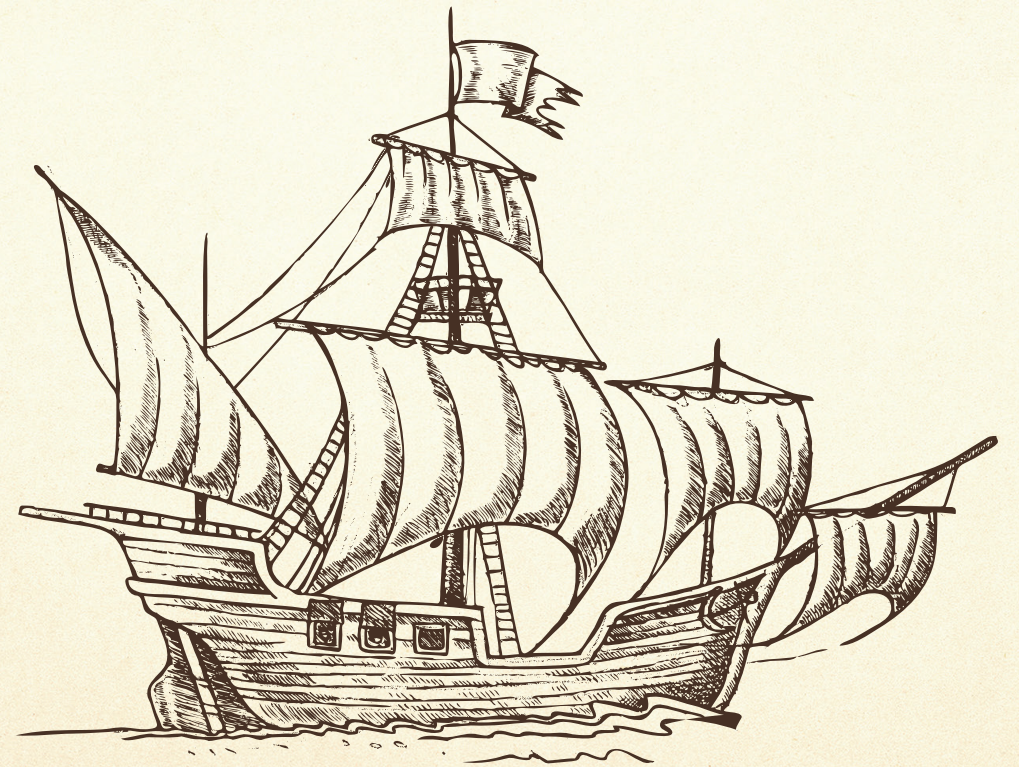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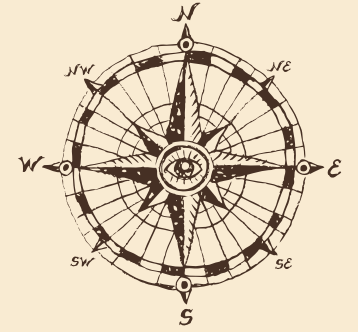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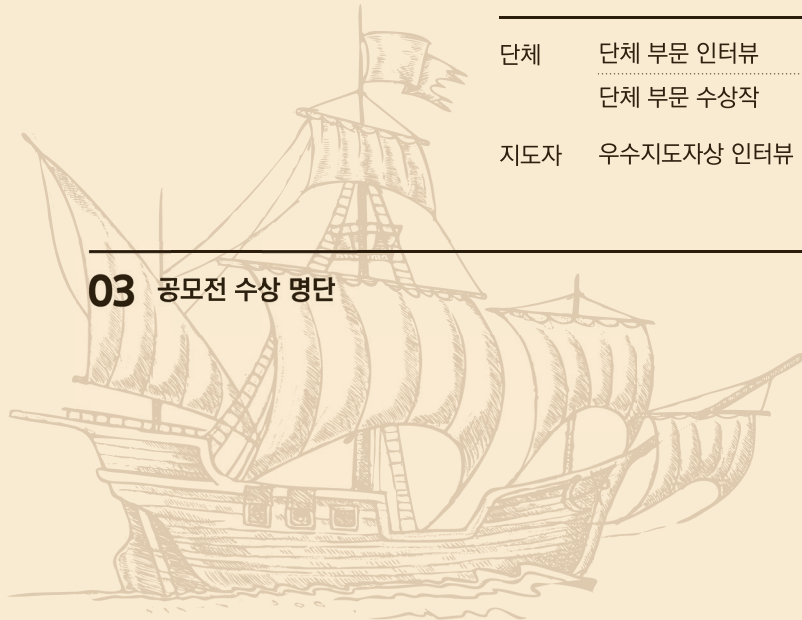
<b>01</b>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참여자 통계	p.08
	주제별 통계	p.09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p.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p.19
	공모전 참여 후기	p.23

<b>02</b> 수상자 인터뷰 & 대표작 모음	이사장상 인터뷰	p.34
	이사장상 수상작	p.36

개인	어린이 저학년 부문 인터뷰	p.38
	어린이 저학년 부문 수상작	p.40
	어린이 중학년 부문 인터뷰	p.42
	어린이 중학년 부문 수상작	p.44
	어린이 고학년 부문 인터뷰	p.46
	어린이 고학년 부문 수상작	p.48
	청소년 부문 인터뷰	p.50
	청소년 부문 수상작	p.52
	성인 부문 인터뷰	p.54
	성인 부문 수상작	p.58

단체	단체 부문 인터뷰	p.60
	단체 부문 수상작	p.64
지도자	우수지도자상 인터뷰	p.66

<b>03</b> 공모전 수상 명단	p.70
---------------------	------



##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뉴스에 공감을 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를 넘어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진위여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2019년 ‘뉴스읽기를 실천하는 뉴스일기장’을 배포하며 현재까지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의 좋은 뉴스를 고르는 노하우, 이를 통해 뉴스일기를 쓴 경험, 뉴스일기장을 소개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제4회 공모전에서 수상한 일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보는지, 이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살펴보세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통해 뉴스를 본 그날의 내 생각을 작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하고 그 과정을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 혹은 그림 등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재미있게 꾸며도 좋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일기로 기록해 주세요!

##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정보에 적절히 접근하여 분별력 있게 이용하는 능력, 뉴스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나 공감 표시하기)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뉴스를 이용하는 능력(뉴스 저작권 준수, 댓글 예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 공모전 소개

참여자 통계 P.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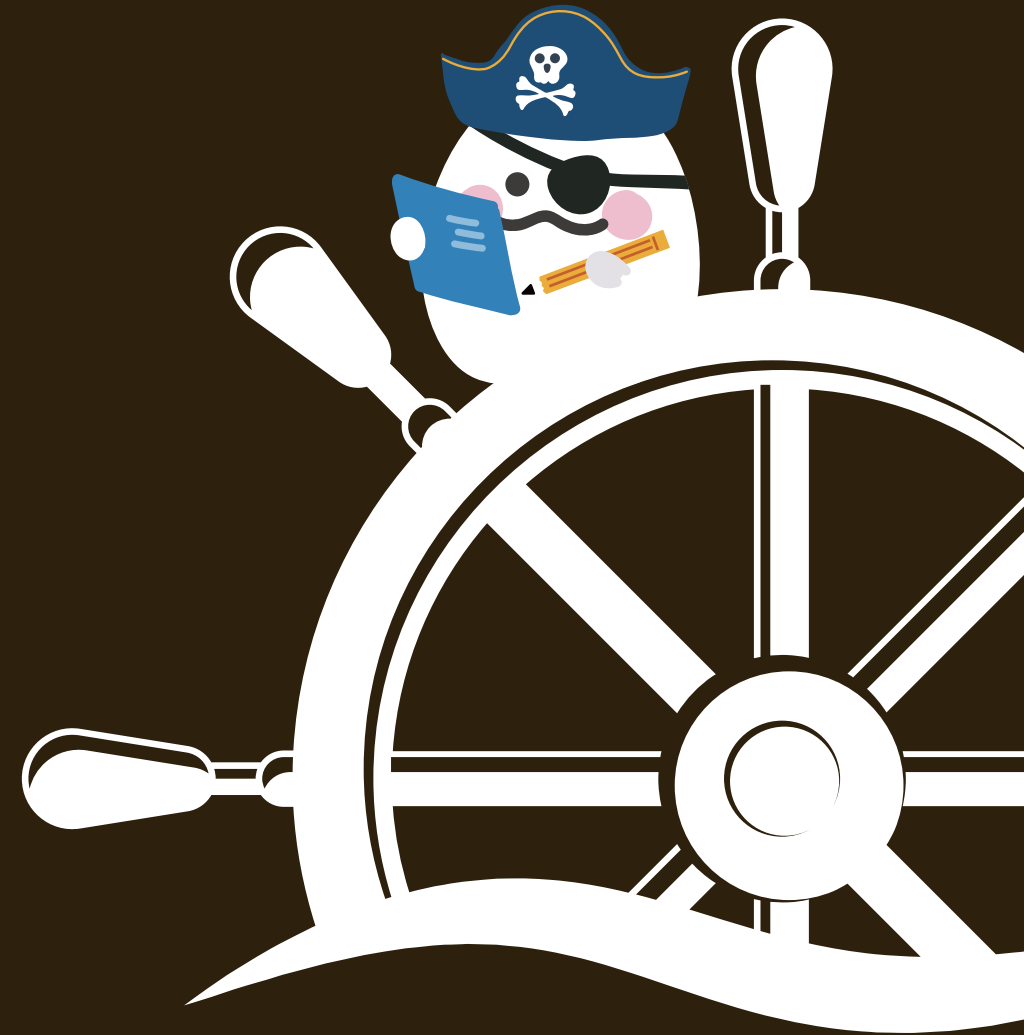
주제별 통계 P.09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P.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P.19

공모전 참여 후기 P.23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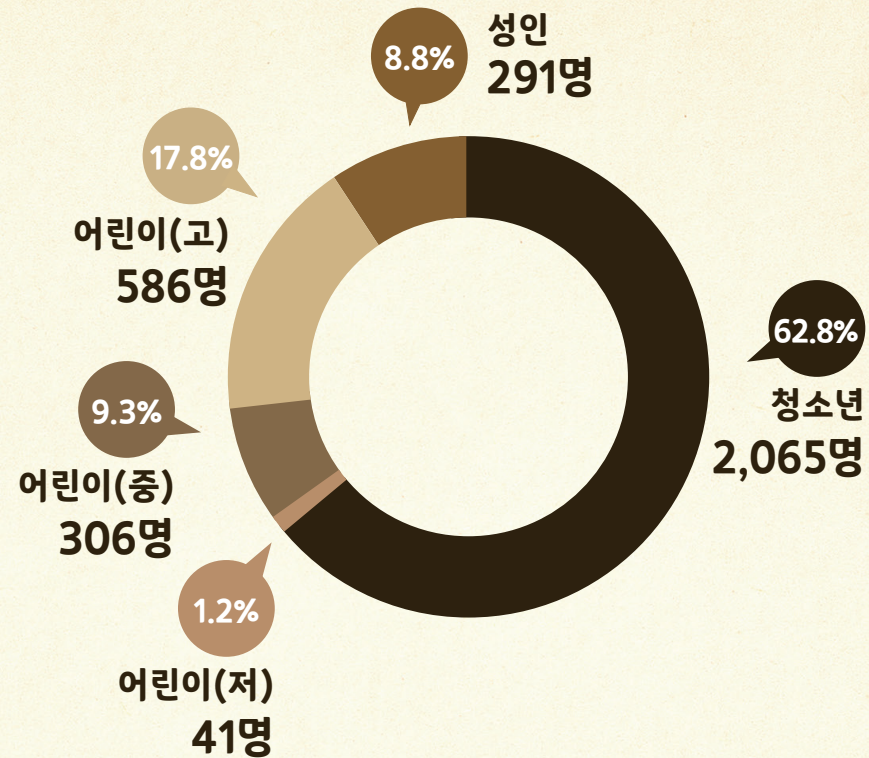




## 제4회 뉴스일기 참여자 통계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 제4회 <뉴스일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어린이(고), 성인 순이었습니다. 최다 일기장 제출은 9권 이었으며, 최다 일기장수는 446장이었습니다. 최연소 참여자는 5세, 최고령 참여자는 78세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뉴스일기, 언제 어디서든 뉴스일기 뉴스일기로 건강한 뉴스일기 습관을 우리 함께 해요~!

### 연령별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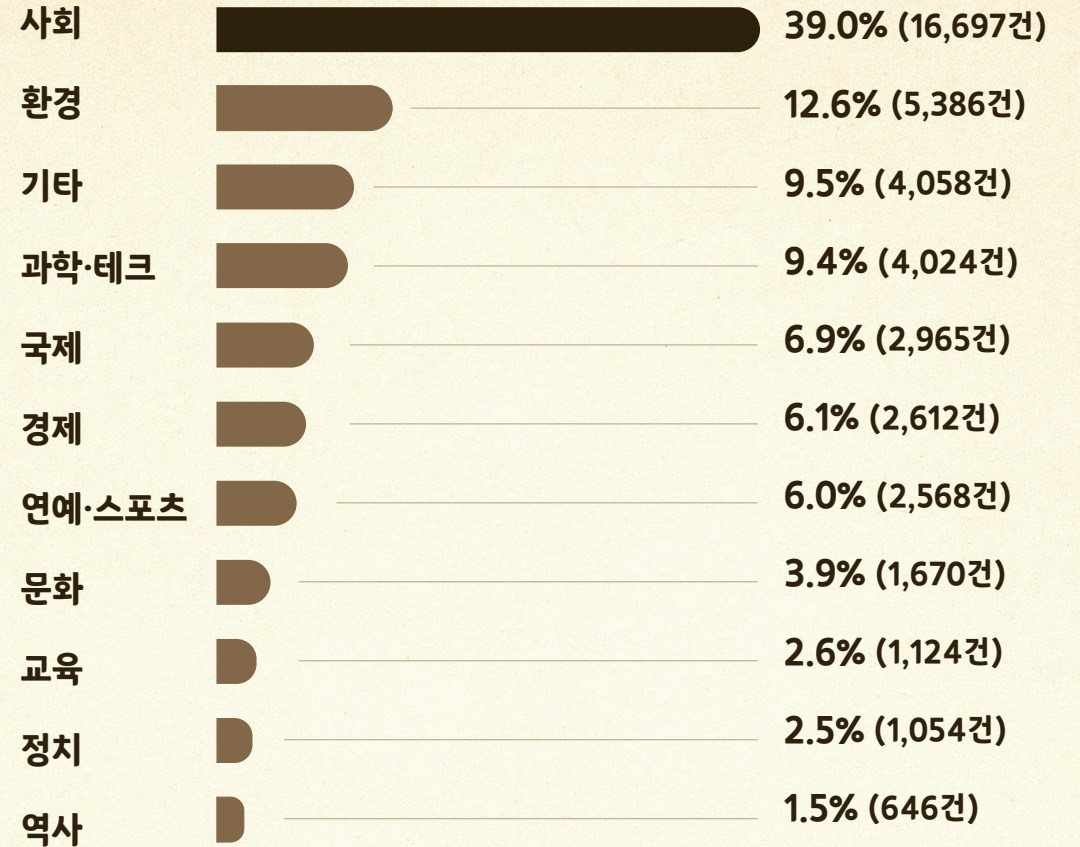
### 최다 일기장, 최다 일기장수



### 최연소, 최고령 참여자



## 제4회 뉴스일기 주제별 통계



### 연령별 관심 주제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2

# 만 나이 통일법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청소년 - 이수빈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국제 기준에 맞춰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를 정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이 생기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어린이(고) - 박소정

우리나라에 나이를 세는 방식이 두 개만 있는지 알았는데 세 개나 있었다니... 매년 나이를 물어볼 때마다 연도에 따라 나이를 말했는데, 나이가 어려져서 좋지만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 나이를 말할 때는 잘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3

# 학교 폭력

시간이 지나도 아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인 - 조예림

최근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더 글로리' 일 것이다.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 '동은이'가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멋진 복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을 좋아한다. '나'라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 수많은 동은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등교한다!



단체 - 김은지, 노지원, 신정은

보호자 혹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도 이상적인 사태의 해결을 바라기는 어렵다. 지금의 법이 피해 학생을 온전히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완벽히 분리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대처, 가해자 엄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해자 엄벌이 '대입 불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은 학교생활을 다시 가해자와 함께 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다소 와닿지 않는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1329104?sid=100>

No. 32  
발기일: 2023.12.18

뉴스 제목: **최대 2살 어린하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누가 일러져?**

뉴스 본문: 2023.12.18 | **연말 특집** | **가정** | **취업** | **취업**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찬성**

-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국제 기준에 맞춰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를 정착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이 생기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대**

-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국제 기준에 맞춰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를 정착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이 생기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1329104?sid=100>

No. 32  
발기일: 2023.12.18

뉴스 제목: **최대 2살 어린하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누가 일러져?**

뉴스 본문: 2023.12.18 | **연말 특집** | **가정** | **취업** | **취업**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팩트 체크**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 연말 특집

**불편한 '만 나이' 기준 유지, 사회적 논의 필요**

별도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조차 한 부분은 만 나이가 아닌, 젊은 학생 보호법, 민방위법 등 도가 별명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 이 시 가**

우리나라에 나이를 세는 방식이 두 개만 있지 않았는데... 세 개나 있었다니... 매년 나이를 물어볼 때마다 연도에 따라 나이를 말했는데, 나이가 어려져서 좋지만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 나이를 말할 때는 잘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1329104?sid=100>

No. 32  
발기일: 2023.12.18

뉴스 제목: **최대 2살 어린하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누가 일러져?**

뉴스 본문: 2023.12.18 | **연말 특집** | **가정** | **취업** | **취업**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대입**

**<대입자 속 주장>**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가해자 속 주장>**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1329104?sid=100>

No. 32  
발기일: 2023.12.18

뉴스 제목: **최대 2살 어린하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누가 일러져?**

뉴스 본문: 2023.12.18 | **연말 특집** | **가정** | **취업** | **취업**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중점**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나의 생각**

학교 폭력은 생애 초반에 겪은 많은 어려움 중 하나인 학교 폭력에 대한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4

# Chat GPT

표절여부를 가르는 양날의 칼



어린이(고) - 안시울

Chat GPT가 학생 과제를 비롯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여러 나라에 독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t GPT는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학습합니다. 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기에 다수가 거짓 정보를 주입한다면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Chat GPT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독도에 그릇된 정보를 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 이수빈

Chat GPT, 게이미피케이션 등 다양한 생성형 AI가 발명되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AI들을 사용하면 신기하고 재밌고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속해서 기술 등이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개발을 멈추자는 것보다 기사처럼 문제점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16살 청소년 뉴스의 용처를 QR코드 혹은 URL로 기재해주세요

No. 5

발간일 2023. 5. 15

뉴스제목 "독도는 누구 땅?".. 일본이 시 챗바드·챗GPT에 물었다니

뉴스내용 2023. 5. 11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문화 / 환경 / 국제 / 연예 / 연예-스포츠 / 역사 / 기타

### 챗GPT 공통점 구글 바드

- 대규모 언어 모델
- 텍스트 생성, 언어 번역,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
- 시 챗바드

### 나의 생각

챗GPT가 학생 과제를 비롯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여러 나라에 독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t GPT는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학습합니다. 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기에 다수가 거짓 정보를 주입한다면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Chat GPT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독도에 그릇된 정보를 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16살 청소년 뉴스의 용처를 QR코드 혹은 URL로 기재해주세요

No. 25

발간일 2023. 04. 29 (일)

뉴스제목 AI가 쓴 책도 표절까지 당할까... 일러스트도 AI가 그려주는 '생생 AI 시대' 취재 기사

뉴스내용 2023. 04. 22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문화 / 환경 / 국제 / 연예 / 연예-스포츠 / 역사 / 기타

### 나의 생각

대형 생성형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가 창작한 이미지나 콘텐츠에 대한 법적 판단이 누가 될지, AI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야 하는지 등 중요한 쟁점이 나오고 있다. 생생 AI와 관련한 몇 가지 기사 기사를 통해 독도 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관련 이슈를 살펴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위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의 생각

대형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게이미피케이션 등 다양한 생성형 AI가 발명되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AI들을 사용하면 신기하고 재밌고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속해서 기술 등이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개발을 멈추자는 것보다 기사처럼 문제점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5

# 인공지능 전성시대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우리



청소년 - 유예지

가상인간 한유아 프로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혈액형, MBTI, 특기, 취미,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글쓰기 및 그림 학습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랐다. 가상인간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책들과 기사들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배운 것이나 들은 것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더 깊고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단체 - 대전금꽃중학교

블루칼라를 위해 만들어진 AI가 오히려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느꼈고 AI와 인간이 타협해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AI와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까?

16살 청소년 뉴스의 용처를 QR코드 혹은 URL로 기재해주세요

No. 2

발간일 2023. 6. 2

뉴스제목 난로 인화하는 인공지능... '화이트칼라' 일자리 줄이듯

뉴스내용 2023년 6월 19일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문화 / 환경 / 국제 / 연예 / 연예-스포츠 / 역사 / 기타

### 인공지능 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 # 화이트칼라의 일자리

- 사무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인공지능(AI)가 빼앗고 있다.
- 미국에서는 1년 사이 화이트칼라 실업자가 15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분야** 정년퇴임자가 1년 전에 비해 88% 증가, **공공과 보험업계** 정년퇴임자는 55% 증가, **제조업** 해고는 25% 증가에 그쳤다.

#### # 직업의 미래

- 일부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일부 직종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 IBM 관계자는 5년 안에 약 2만 6000개의 내대면 업무 중 3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새로운 기술로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며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경제 구조의 변화??

- 과거에 경기불황때는 항상 저임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블루칼라였다.
-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대서출세주주대 연구팀은 분석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블루칼라의 입금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 #이 기사에 대한 내 생각

- 블루칼라를 위해 만들어진 AI가 오히려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빼고있는것이 안타깝다 느꼈고 AI와 인간이 타협해 지내면 좋을것 같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8

# 전세사기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청소년 - 김에서



성인 - 백진영

전세사기 대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책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전세사기의 원인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등의 방법을 통해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무자본 겹투자' 라고 불리는 투자 방법이었다. 이로 인해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결함을 안고 있는 전세제도를 이번 기회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 심사대전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 제대로 읽은 뉴스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뉴스는 독이 되어 판단을 흐린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가려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올해는 총 3,289명이 참여해 44,362장의 일기장이 작성되며 뉴스일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뉴스 일기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 현직교사, 언론인, 교수 등 심사를 진행한 6명의 심사위원에게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평을 들어보았다.

##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 중학교 교사

중학교에서 올바른 미디어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단체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 언론기자

29년간 신문과 방송을 오가며 기자생활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인, 단체 부문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대학교 미디어영상학 교수입니다. 어린이(저/중/고)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 방송국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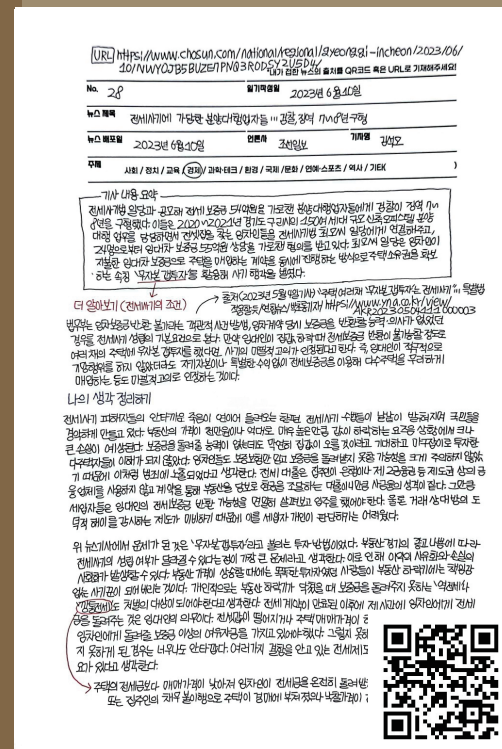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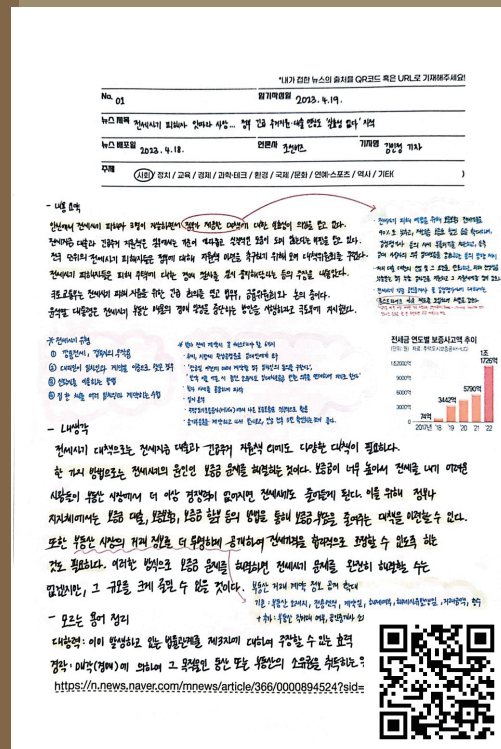
올바른 미디어 제작을 하는 방송국 PD입니다. 어린이(저/중/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 정책 연구원

청소년정책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단체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교육의 힘을 믿으며 학생들에게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저/중/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 01

## 뉴스일기를 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뉴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자신만의 관점으로 얼마나 뉴스를 '사색'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검색과 사색의 균형을 가지고, 뉴스를 내면화하여 나-우리-세상과 연결하는 내용을 담았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얼마나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 **중학교 교사**

다양성과 균형 감각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미디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의 유익한 지식과 서로 다른 생각을 접취하면 올바른 사고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천착해 훌륭한 일기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시야를 넓히려 한 일기에 더 공감이 갔습니다. - **언론기자**

정보적 기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에 어떻게 반응 하였는 지, 재미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 지 잘 표현한 일기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과정이겠으나 이러한 주관적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반응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뉴스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키우고 반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동시에 일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 **방송국 PD**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얼마나 다양한 출처의 뉴스를 읽었는지와 뉴스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얼마나 잘 충실히 담았는지였습니다. 특히 얼마나 독창적으로 뉴스일기를 구성했는지도 눈 여겨 봤습니다. - **정책 연구원**

뉴스에도 가치와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뉴스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포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담겨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뉴스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 02

## 가장 인상깊게 읽은 뉴스일기를 소개해주세요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매우 많은 양의 뉴스일기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작성한 어느 중학생의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뉴스의 중요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정리하였는데, 한 편의 일기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흔적이 돋보이는 일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 **중학교 교사**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은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한 특종, 기획, 디지털 혁신 기사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양질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 **언론기자**

저는 초등학교 부부는 심사하였습니다. 하나의 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학년들의 일기를 심사하면서 매우 감명이 깊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와 때 묻지 않은 시각들이 좋았습니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저학년 일기 중 어머니의 의견이 매 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고학년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성스러운 글씨와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깔끔하게 정리한 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 **방송국 PD**

웹툰을 그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뉴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출한 일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또한 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한 일기장도 기억에 남네요. - **정책 연구원**

뉴스의 내용을 그림, 만화, 도표, 순서도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정리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뉴스 텍스트의 내용 구조를 분석하고 각각의 내용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를 제대로, 충충하게 읽는 과정이 선행된 뉴스 일기에는 그에 대한 유의미한 의견이 형성되고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 03

##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뉴스일기 작성 꿀팁은?

뉴스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기보다는 나, 인생, 타인, 세상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고 일기를 작성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던지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을 시도하면 배경지식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작성하는 일기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 **중학교 교사**

워낙 우수한 뉴스일기가 많아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최종 수상작을 고르는 과정에 들어가면 내용면에서 우열을 가르기 어려워 시각적 요소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글씨가 깔끔하고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배치해 가독성을 높인 일기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언론기자**

기사를 읽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상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뉴스에서 얻은 지식이나 의견을 일상에 적용해 보거나 또는 적용해 보는 상상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시각이나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뉴스일기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듯합니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좀 더 다양한 뉴스를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나면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틀에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꾸준히 기록해 나가면 놀라운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 **방송국 PD**

뉴스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 리터러시 관점에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적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해당 뉴스가 정보나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얼마나 공정한 시각으로 사안을 보도하는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잘 담는지 등 뉴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글을 적어야 리터러시 역량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 **정책 연구원**

동일한 형식의 뉴스일기를 방대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뉴스에 담긴 정보와 가치에 맞는 형식으로 뉴스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소비자로서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또한 처음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점차 스스로 읽고, 작성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초등학교 교사**

# 04

##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뉴스일기가 '꾸준함과 성실함', '창의성과 다양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분야의 뉴스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 주제의 뉴스를 다룬 점도 인상적이었고, 생각을 표현할 때에도 글, 이미지, 도식 등 다채로운 방법을 활용한 방법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검색하는 뉴스에서, 사색하는 뉴스로 일기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중학교 교사**

숫용 풍상이 대세인 시대에 레거시 미디어의 기사는 효용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존 매체와 거리가 멀 것이라 예상했던 젊은 세대에서 다양한 기사를 찾아서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언론기자**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일기가 많아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 부문의 경우 부모님이나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일기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즉 우수하기는 하나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라고기보다는 어른들의 시각이 많이 들어 있는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에 분량만 많은 일기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기들은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많은 어린이들이 세상의 다양한 뉴스를 기사를 통해 접한다는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 **방송국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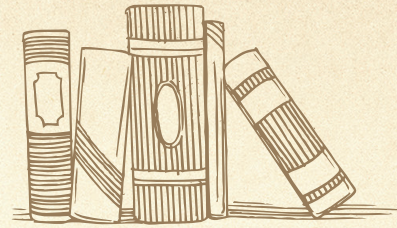
너무 훌륭한 공모작들이 많아 심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형식의 글들이 많다 보니 독창적으로 뉴스 일기를 구성한 사례가 적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향후 자신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뉴스 일기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 **정책 연구원**

뉴스일기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영상 중심의 정보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학생들이 문자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를 잘 읽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나 깊고 넓게 뉴스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초등학교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000 이다!



# 공모전 참여 후기

안산중앙중학교

치킨 쓴다 ~!  
이벤트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 연결고리

오늘의 세상 소식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연결고리이다.  
- 중학교 교사



## 균형추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 언론기자



## 자신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만드는 과정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방책과 기회이다.  
- 미디어영상학 교수



## 놀이터

어린이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다.  
- 방송국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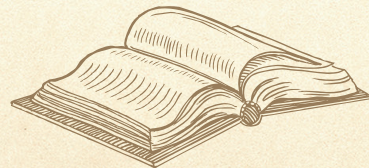
## 생활화

뉴스읽기와 뉴스쓰기를 생활화해야 뉴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뉴스를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연구원



## 주인공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세상에 참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 초등학교 교사





# 공모전 참여 후기

##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김소윤** 저희 학교는 야구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 야구부의 경기영상을 틀어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며 보는데, 야구의 룰은 몰라도 신나고 재미있게 봅니다. 이번엔 전국대회에서 일등을 해서 정말 기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도 다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인데 늘 인사드릴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받아 주십니다. 학교시설도 넓어서 좋아요.

**김나림** 저희 안산중앙중학교는 야구부가 유명하고 큰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중앙중학교가 크고 가운데에 있으므로 여기저기 초등학교에서 많이 입학했기에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주하영**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모여있고 안산에서 가장 큰 운동장을 보유하고 야구부가 유명합니다. 또 책을 자주 읽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송영권** 학생들이 밝고 활기차고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좋은 학교

**정운서** 저희 중앙중학교는 공부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모여 무지개처럼 이쁘게 가꾼 학교입니다.

##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소윤** 학교에서 참가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늘 새롭게 해 오는 멋진 솜씨를 가진 친구들것도 보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었고요. 결국 하면 할수록 재밌었습니다.

**김나림**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어 처음에는 재미없는 것 같았지만 욕심이 생겨 재미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채** 학급 게시판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보고 관심이 갔는데 선생님들께서 종이를 주셔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정운서** 저는 자율동아리인 '신문스크랩' 동아리로 활동했는데 이번 공모전 단체 참여를 적극추진 하신 국어선생님과 도덕선생님의 공지를 듣고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미** 학교에서도 신문동아리에 회원일 만큼 뉴스기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선생님들의 권유로 이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3. 공모전을 참가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김소윤** 굉장히 후련했습니다. 꼭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치킨육심이 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의 노력이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나림** 글을 잘 요약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전보다 높은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뉴스 기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공모전으로 인해 뉴스 기사를 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윤채** 뉴스로 지금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또는 학원 등 잘 지낼 때 다른 분들은 슬프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뉴스를 읽으며 사회, 경제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요약하면서 요약하는 방법을 더 향상하게 되었으며 공부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조소영** 저도 친구들도 평소에 뉴스 읽기를 좋아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 덕분에 뉴스읽기 뉴스일기 대회에 참여한 것과 더불어 참여해서 1등을 하여 기쁩니다. 안 그래도 이런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던지라 이번 기회로 대회에 참가하여 1등 한 것이 보람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은진** 평소 뉴스를 잘 보게 되지 않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랐는데 이 공모전 참가 후 앞으로 뉴스를 보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Q4. 예비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정운서** 제게 신문일기 공모전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지혜롭고 멋진 나에게로 한층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비 참가자 분이 공모전 기간만큼은 꼭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그 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계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모전이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처음엔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모전이 끝나갈 때 즈음 뒤를 돌아보면 예비 참가자분이 밟아오신 길은 고운 흙으로 변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최현우** 정말 좋은 공모전이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김보연** 경험을 쌓기에 좋으니 한 번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이은진** 막막하게 느껴져도 막상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이 일기가 완성돼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박정미** 이 공모전은 열정을 가진 채로 참가하면 본인의 글 쓰는 능력, 기사를 보는 능력, 미적인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기를 쓸 때 가끔 귀찮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열심히 했던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힘도 납니다! 다들 참가하시고 긍정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일기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 공모전 참여 후기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치킨 쏘다 ~!  
이벤트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 공모전 참여 후기

##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류혜원**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으며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즐겁게 해 주시고 모두들 친절한 학교입니다!
- 나애리**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시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넓습니다. 급식도 맛있습니다.
- 이조빈** 재밌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 입니다.
- 한예람** 환경에 관리를 열심히 하는 학교
- 김루나** 솔미중학교는 탄소중립 실천 학교이고 분위기가 따뜻한 학교입니다!

##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류혜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하다 보니 쓰는 게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다.
- 나애리** 뉴스 읽기가 뭔가 싶었는데 쓰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공모전 또한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이조빈** 학교에서 뉴스일기 쓰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 한예람** 여러 뉴스를 쓰고 알아가기 위해
- 김루나** 사회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사회선생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입니다.



# 공모전 참여 후기

## Q3. 공모전을 참가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장서우** 열심히 하길 잘했다!
- 공정훈**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된 느낌이 듭니다.
- 이조빈** 뉴스일기를 쓰기 전에는 뉴스에 관심이 없었지만 쓰고 나니 다양한 사건을 알게 되어 좋고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부듯하다.
- 이서영** 뉴스를 읽고 글로 내 생각을 적어보니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 한예람** 큰 페이지를 다 채우려니 힘들었지만 나름 결과물이 부듯했다.

## Q4. 예비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나애리** 공모전 참가 꼭 하세요
- 공정훈** 뉴스일기를 진심으로 재밌게 생각하고 즐기면 작성이 더 수월하실 거예요!
- 이조빈**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흥미가 생기니 열심히 노력해서 써보시는거 추천해요! 화이팅!
- 이서영** 다 쓰고나면 너무 보람차고, 상식도 쌓이니 추천드립니다
- 김루나** 뉴스일기를 쓰고나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해요

# 공모전 참여 후기

솔미중학교

치킨 쓴다 ~!  
이벤트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 공모전 참여 후기

##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박신훈** 깨끗하고 항상 발전하는 멋진 학교입니다.
- 김민재** 2016년에 학교 개방을 시작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초등학교 입니다.
- 손채영** 학생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는 따뜻한 학교입니다.
- 배민선** 선생님들이 다들 친절하신 학교입니다.
- 서예준** 엄청난 인원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이민서**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배민선** 이전 공모전을 참여했을 때 몰랐던 기사를 많이 알게 되어서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손채영** 논술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해보자고 추천해 주셨고,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 박기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 신연우** 논술학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재밌어서 또 참여하게 되었다.

# 공모전 참여 후기

## Q3. 공모전을 참가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서예준**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게 좋았다.
- 김민재** 한 장 한 장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모두 모아진 걸 보니 책이 한 권 만들어진 거 같아 뿌듯하고 멋있었다.
- 김시은**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하면서 더 뉴스들을 많이 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김채린** 뉴스 속에는 숨은 정보와 지혜가 가득했고 재밌었다.
- 신연우** 모르는 뉴스기사를 읽은 후 작성하니 이해도 쉽고, 느낌과 생각도 많이 생겼다.

## Q4. 예비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이민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참가해 주세요.
- 서예준** 뉴스 잘 분석해서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언론을 만들어줘
- 양다연** 손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진짜 멋진 일기가 나오는 거 같아. 모두 지치지 말고 도전!!!
- 배민선** 화이팅!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 신연우** 뉴스를 안 보거나, 뉴스기사를 안 읽는 분들은 이 공모전에 참가하셔서 많은 뉴스기사를 알고, 이해도 더 쉬워질 테니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 수상 대표작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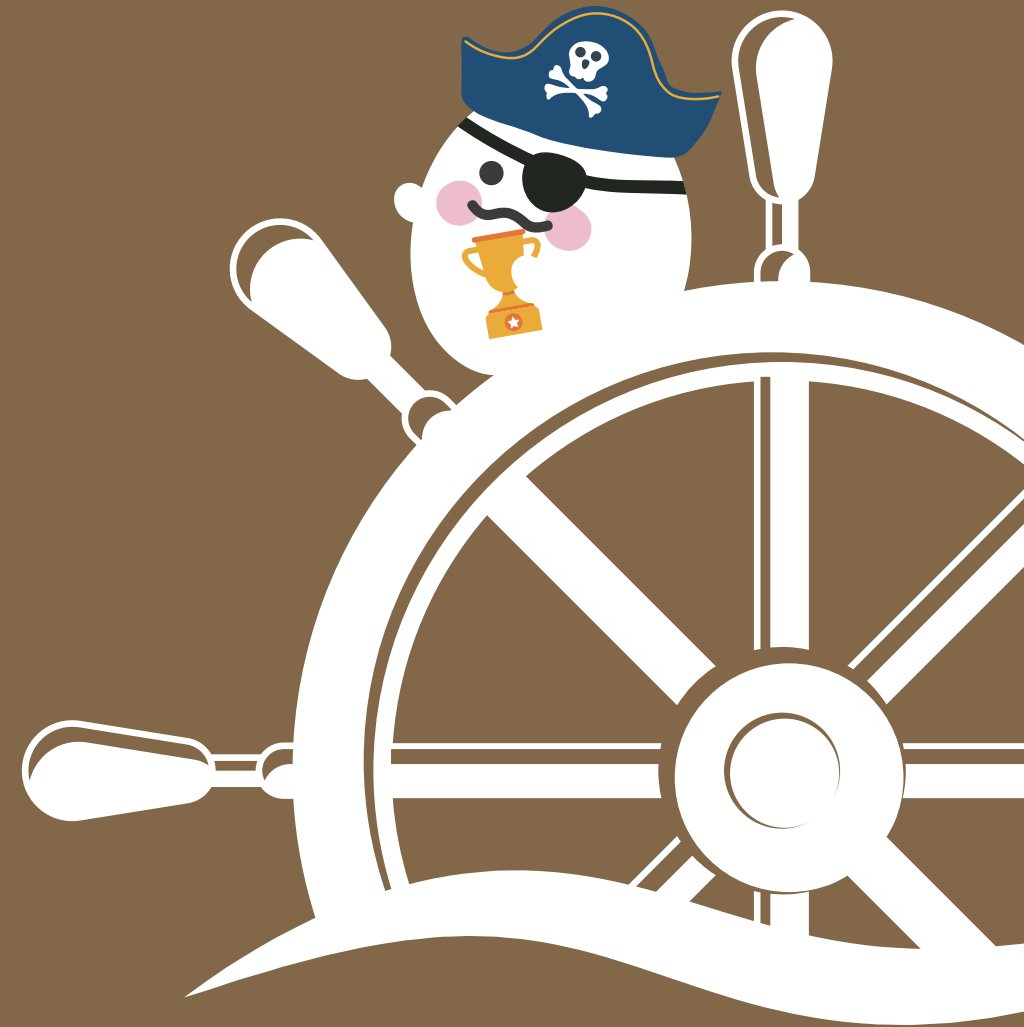
이사장상 수상작 P.34

개인부문 수상작 P.38

단체부문 수상작 P.60

우수지도자 P.66

# 02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에서 이사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읽기 뉴스읽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인식을 얻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뉴스읽기를 쓰고,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평소 뉴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읽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뉴스읽기를 쓸 때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보아야 세상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스를 고를 때는 아래 3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1. 뉴스가 최신이고 중요한지
2. 뉴스가 객관적이고 진실한지
3. 뉴스가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뉴스읽기를 쓸 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하고 기사 내용의 찬성과 반대, 원인과 결과 등을 생각하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작성했습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읽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뉴스읽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뉴스읽기를 독특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읽기는 단순히 뉴스의 요약이나 보고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개인적인 반영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읽기를 쓸 때 가능한 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Q6. 뉴스읽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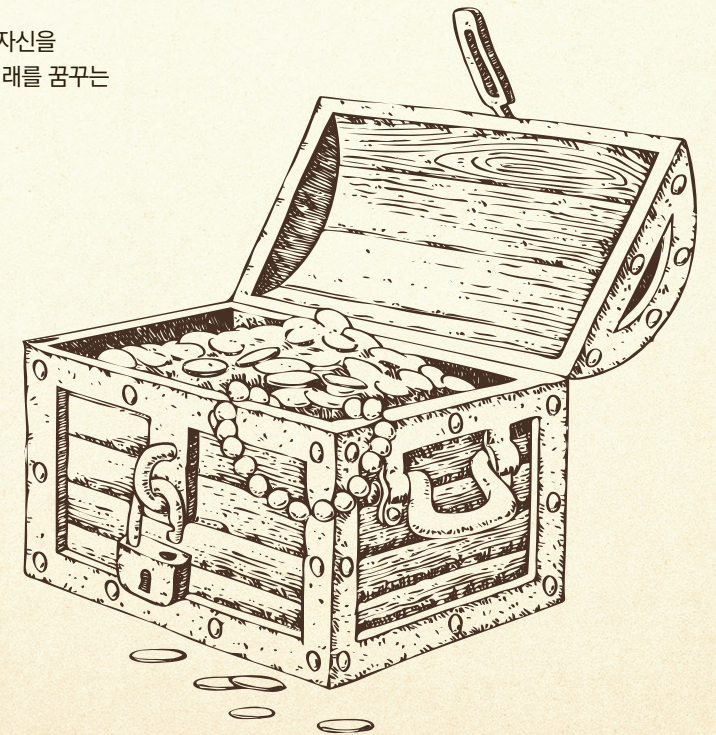
가장 어려웠던 점은 뉴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스읽기를 쓸 때 단순히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이나 변화를 원하고 기대하는지 등을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갈등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 Q7. 뉴스읽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뉴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뉴스읽기장 작성 전에는 뉴스를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지루하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읽기장 작성 후에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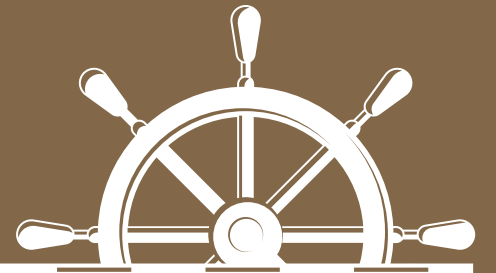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읽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뉴스읽기 뉴스읽기는 세상을 알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미래를 꿈꾸는 활동입니다.





# 이사장상 수상작



No. 12  
발기일: 2022. 8. 12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가?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했다.

뉴스 요약: 2022. 8. 12. 일문서. 중앙일보. 기행문. 김태진, 김지연, 김민우.

뉴스 내용: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가?"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했다. 반기화. 없애려 하는 것들... 죽음을 '우리의 이념'으로 바꾸는 것.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가?'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했다. 반기화. 없애려 하는 것들... 죽음을 '우리의 이념'으로 바꾸는 것.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가?'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했다. 반기화. 없애려 하는 것들... 죽음을 '우리의 이념'으로 바꾸는 것.

내 생각: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하는 것은,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가?' 반기화 시정론을 통해 터득했다. 반기화. 없애려 하는 것들... 죽음을 '우리의 이념'으로 바꾸는 것.

No. 9  
발기일: 2022. 8. 15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6,900원 당올라가며 살아왔던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뉴스 요약: 2022. 8. 12. 일문서. MBN. 기행문. 정희우.

뉴스 내용: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6,900원 당올라가며 살아왔던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6,900원 당올라가며 살아왔던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내 생각: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6,900원 당올라가며 살아왔던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6,900원 당올라가며 살아왔던 '대신났다' VS '안났다' 추경.

No. 67  
발기일: 2022. 8. 15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뉴스 요약: 2022. 8. 15. 일문서. MBC. 기행문. 정희우.

뉴스 내용: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내 생각: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No. 50  
발기일: 2022. 8. 15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뉴스 요약: 2022. 8. 15. 일문서. MBC. 기행문. 정희우.

뉴스 내용: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내 생각: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있는 삶이, 없는 삶이' ... '우리가 사는 삶'이 OECD '좋은 삶'보다 낫다.

No. 18  
발기일: 2022. 9. 2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세이리딩'이란?

뉴스 요약: 2022. 9. 2. 일문서. 중앙일보. 기행문. 이진영.

뉴스 내용: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내 생각: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No. 53  
발기일: 2022. 9. 9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세이리딩'이란?

뉴스 요약: 2022. 9. 9. 일문서. 중앙일보. 기행문. 이진영.

뉴스 내용: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내 생각: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No. 43  
발기일: 2022. 9. 23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세이리딩'이란?

뉴스 요약: 2022. 9. 23. 일문서. 중앙일보. 기행문. 이진영.

뉴스 내용: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내 생각: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No. 56  
발기일: 2022. 9. 23  
주제: (9)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뉴스 제목: '세이리딩'이란?

뉴스 요약: 2022. 9. 23. 일문서. 중앙일보. 기행문. 이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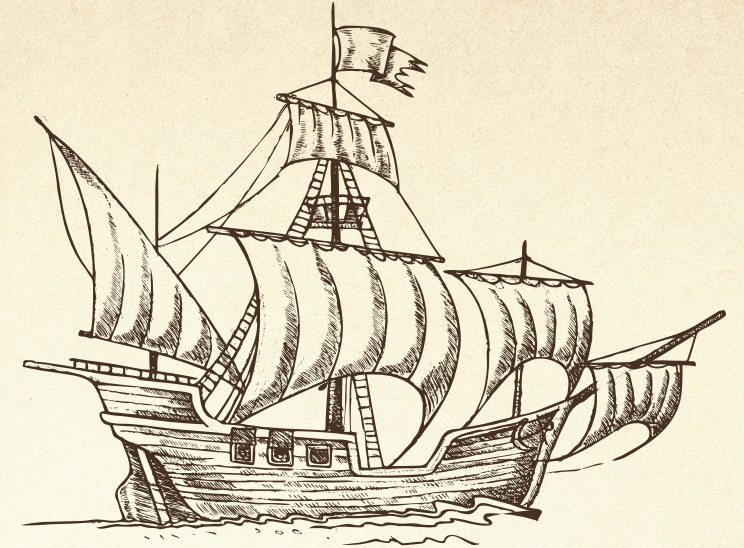
뉴스 내용: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내 생각: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세이리딩'이란?



# 수상자 인터뷰

개인 | 어린이 저학년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황선하** :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도서관선생님,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큰 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은상\_이호정** : 매일매일 신문을 읽고 생각하며 글을 읽고 적으니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노트가 상이 되어 기쁩니다.

**은상\_안소윤** : 너무 기쁘고 신나요.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아요.

**동상\_엄수빈** :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재미있게 열심히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잘하고 싶습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황선하** : 제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해 이번에도 계속 도전하게 되었어요.

**은상\_김서원** : 신문 이야기도 재미있고 정리하며 쓰는 것도 재미있어서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

**은상\_안소윤** : 작년에 제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고 싶었어요.

**동상\_최은서** : 독서선생님이 신문 읽기를 해보면 생각도 넓어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도 알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참여했습니다. 쓰는 것도 재미있어서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황선하** : 주로 관심 있는 환경과 동물 관련 뉴스를 보았어요. 재미있는 제목 또는 깜짝 놀랄 사실이 숨어져 있는 제목을 찾아 골라요.

**은상\_안소윤** : 주로 우리 사회에 관련된 것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주제로 골랐어요.

**은상\_이호정** : 주로 제가 제일 관심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동물, 기쁜 뉴스나 꼭 알아야 하는 뉴스를 고릅니다.

**동상\_김시우** : 뉴스가 아직 어려워 이해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준은 내가 어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황선하** : 매일 뉴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골라 3번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적고, 내 생각과 느낌을 편지나 일기형식으로 써요.

**은상\_이호정** : 만화 만들기, 비주얼씹기, 기사요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5회 참여자 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 보세요.

**동상\_박현준** : PMI, KWL, 토론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내 생각이 자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약하고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황선하** :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사내용을 이해해야만 내 생각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상\_안소윤** : 일기를 작성하기 위해 오늘은 어떤 활동과 주제로 할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

**은상\_김서원** : 기사 내용에 맞게 나의 생각 쓰기입니다.

**은상\_이호정** :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 기사의 중심내용을 잘 이해해 적는 것. 오래오래 생각하는 것

**동상\_김시우** : 나의 생각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쓰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상\_최은서** :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황선하** : 동물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려면 기사를 꼼꼼히 읽어야 해서 어려웠어요.

**은상\_김서원** : 어려운 기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동상\_엄수빈** : 긴 기사의 내용을 읽고 중심단어와 내용을 찾아 요약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린이 신문에 있는 활동을 해보거나 기사의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황선하** : 학교에서 환경보호, 지구사랑을 실천할 때 이해하기 쉬웠고, 내 주변, 지구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뉴스가 쉽고 재미있어졌어요.

**은상\_이호정** :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은상\_안소윤** : 생각이 풍부 해지고 기사를 고르는 게 조금 쉬워진 것 같다.

**동상\_박현준** : 예전에는 어떤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했다면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을 읽고 토론하면서 제 생각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행동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_황선하** : 배움이다. 환경, 동물, 전쟁, 과학, 경제를 읽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상\_김서원** :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상\_안소윤** : 나의 작은 도전 활동.

**은상\_이호정** : 생각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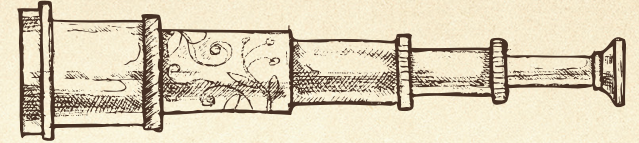
**동상\_고민설** :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다.

**동상\_엄수빈** :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세상과 내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법이다.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박현아** : 아빠와 경제 기사를 읽다가 뉴스 내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어 한 번 도전해 보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아 엄마한테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관심 있는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상\_김연아** : 상을 받을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은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 쓰는 솜씨는 부족하지만 매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문을 대하는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5회 때는 좀 더 성장하여 참여하겠습니다.

**동상\_김세령** : 힘들 때도 있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뉴스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재능은 노력이라는 말처럼 늘 노력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박현아** : 3학년 때 아빠가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 경제 신문을 함께 읽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골라준 기사를 읽었는데 나중에는 아빠가 저에게 기사를 고르라고 해서 경제 신문을 넘겨 보며 함께 읽고 싶은 기사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 주제를 고민하다가 어린이신문 속 찬반토론 코너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린이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만나다 보니 제가 본 신문기사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저의 이해력과 표현력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이지원** : 학교 아이엠스쿨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흥미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임빈** : 지난 2회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시작했습니다.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박현아** : 처음에는 아빠와 경제 뉴스로 시작하여 경제 기사를 많이 보았지만, 점점 제가 관심 있는 사건들에 관한 기사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 뉴스들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은상\_조은우** : 저는 주로 어린이신문을 봅니다. 경제면이나 사회면을 주로 선택합니다. 경제면을 보면 전 세계 소식을 볼 수 있어 뉴스 일기 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상\_신연우** : 어린이 신문 기사를 주로 보았고,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골랐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박현아** : KWL, PMI, 마인드맵, 토론, 편지 쓰기, 포스터 만들기, 표어 만들기, 질문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만의 기사로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다 보니 지겹지 않게 꾸준히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은상\_이지원** : 1. 자신의 기준에 적합하고 자신이 쓰고 싶은 뉴스기사를 고릅니다(인터넷 뉴스, 종이 신문 등). 2.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자료를 간추립니다. 3. 뉴스일기를 어떻게 쓸지 구상합니다. 4. 구상한 대로 글을 쓰고 꾸밈니다(뉴스내용 간추리기= 주요 사건을

표시하고 각 사건을 간추려 중심문장을 만든 뒤 주요 사건 중심문장들을 엮어 내용을 간추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깨달았지만, 간추리는 것은 짧은 글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쓰기=뉴스를 읽거나 뉴스일기를 쓸 때 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씁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박현아** : 같은 주제에 관한 다른 기사나 책들을 찾아보며 뉴스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며 읽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문 기사나 TV뉴스에 관심 있는 내용이 나오면 해당 내용에 관한 다른 기사나 책, 유튜브를 찾아보며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양한 관점 속에서 제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은상\_이지원** : '글'입니다. 제 뉴스일기의 중심이 된 것이 대부분 글이기도 하였고, 저는 뉴스일기를 보기 쉽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더 풍부하게 간추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상\_김주원** :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이해해야 내가 여러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박현아** : 저는 관련된 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뉴스는 많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는 기사를 찾는 것이 꽤 오래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또 검색을 했을 때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사를 빨리 찾을 수 있을지 고민되고 답답했습니다.

**은상\_김연아** : 좋아하는 기사가 양면에 인쇄되어 있을 때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상\_조은우** : 꾸준히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소식 중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입니다.

**동상\_신연우** : 신문기사를 읽고 중요한 문장 찾습니다. 특히 어려운 신문 기사 내용은 중요한 문장을 잘 찾지 못해서 몇 번씩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박현아** : 평소에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주로 동화책만 읽었는데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 이것저것 관심 있는 주제가 생겨서 다양한 책들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이 좀 풍부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상\_조은우** : 기사를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휘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상\_신연우** : 더 많은 뉴스, 신문 기사들을 통해 지식을 더 쌓게 되었습니다.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_박현아** :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란 더 넓은 세상을 자세히 보게 해주는 망원경입니다.

**은상\_김연아** : 특별하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내 마음에 쌓인다.

**은상\_이지원** : 한 번뿐인 경험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마법.

**은상\_조은우** : 매일 먹는 밥과 같다

**동상\_임빈** : 햇빛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읽기 뉴스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상\_신연우** : 지식을 쌓아주고, 세상의 여러 소식과 의견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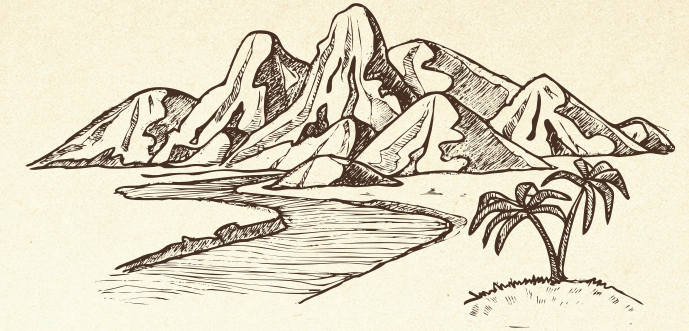
**동상\_김주원** : 지식을 주는 보물 이야기다.

**동상\_김세령** :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현미경이다. - 세상의 현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줘서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김소이** : 먼저 제 작품을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모전 결과를 봤을 때 제 이름이 있어서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기뻐합니다.

**은상\_박소정** :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도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습관을 지니고 올바른 뉴스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도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상\_박서윤** : 너무 보람차고 기쁩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김소이** : 저는 독서논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 뉴스일기 공모전을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황태희** : 제3회 공모전에 참가 후, 또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4회에도 도전했습니다.

**은상\_안시울** :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수연** : 평소에도 어린이 신문을 구독해서 읽고 노트 정리 같은 걸 좋아해서, 이 대회를 보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다.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김소이** : 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뉴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흥미 있거나 사회적 이슈를 담은 내용의 뉴스를 선정해서 일기를 작성합니다.

**은상\_안시울** : 요즘 유행하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주로 보았고, 주제와 내용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는 뉴스로 주로 골랐습니다!

**동상\_류승은** :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여 일기를 썼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뉴스와 글을 쓰기에 적합한 뉴스를 골랐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김소이** : 뉴스일기라 해서 꼭 글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뉴스의 그림을 스크랩해 써도 되고 적절한 그래프나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은상\_박소정** : 뉴스의 핵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마인드맵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고 전문 용어의 설명을 한쪽에 기재하여 내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동상\_안소이** :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김소이** : 뉴스일기를 작성할 땐 일기인 만큼 나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나 포인트를 찾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상\_박소정** : 내 생각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동상\_김도겸** :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 페이지 속에 최대한 알차게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기사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김소이** :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뉴스일기가 자꾸 숙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뉴스일기를 재밌는 활동이 아니라 숙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기 싫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상\_황태희** : '기사정리'입니다. 내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쓰면 되지만 기사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정리'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동상\_박서윤** :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김소이** :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 저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기 위한 어휘력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은상\_안시울** : 30장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상\_김수연** : 평소에 신문을 읽을 때는 그냥 재미있는 거나 만화, 내 관심사인 뉴스만 읽었는데 뉴스 일기를 쓰며 제대로 전달해야 하니까 더 꼼꼼히 읽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읽게 되었다.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_김소이** :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일기를 작성하며 지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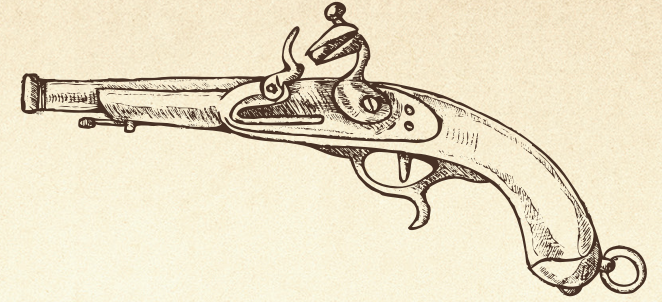
**은상\_박소정** : 어떤 글이든 한 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오늘의 시작"입니다.

**동상\_류승은** :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구절판처럼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다.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이수빈** : 학교 축제를 하는 날에 수상 소식을 듣게 되어 두 배로 기쁘고 놀랐습니다. 뉴스일기를 써 보기로 결심했을 때 수상보다는 뉴스를 보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몇 개월간 꾸준히 작성해온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 같아 뿌듯했습니다.

**은상\_조은솔** :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대회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동상\_이하람** : 솔직히 수상할지 몰랐는데 동상을 받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이수빈** : 학교의 공지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읽고 뉴스의 내용과 저의 생각 등을 적어놓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거 같아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안예린** :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선생님의 추천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뉴스를 많이 접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모전 참여를 결정했다.

**동상\_현미소** :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루에 한 기사씩 골라서 기사스크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공모전을 알려주시면서 하는 김에 같이 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신청하였습니다.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이수빈** : 저는 주로 헤드라인으로 나온 뉴스를 먼저 읽고 그와 관련된 다른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여러 뉴스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사회 이슈 등을 알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꼭 알아두어야 할 거 같은 뉴스를 골랐습니다.

**은상\_유예지**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제의 뉴스를 많이 보았고 그중에서도 환경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관련 뉴스를 주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 같은 주제의 뉴스를 골랐습니다.

**동상\_박정하** : 기사를 고르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쓸지 정한 다음 그 형식에 맞춰 썼을 때 가장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뉴스를 고릅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이수빈** : 저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바로 '다양한 형식 사용하기'입니다. 마인드맵, 편지,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면 지루하지 않고 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뉴스일기를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은상\_안예린** :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정리 해보면 기사의 내용이 더 쉽고 빠르게 이해되고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동상\_이현우** :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기사를 읽으면 일단 모든 기사를 훑어보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던 것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관심 뉴스는 반드시 추가로 검색해서 여러 언론사를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뉴스 읽기를 하면 됩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이수빈** : 뉴스를 읽고 '나의 생각 적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까지 남겨놓으면 사고의 깊이도 깊어지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궁금한 점들을 더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상\_조은솔** : 내가 찾아본 뉴스와 일상생활의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흔히 뉴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넓은 세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며 생각을 넓혀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상\_이현우**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조사한 후 정리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디지털이나 미디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배경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이수빈** : 저는 뉴스일기를 쓰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귀찮을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일기 작성을 마치면 그 성취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며 꾸준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_안예린** : 주제가 다소 난해하고 어렵거나 분량이 많이 긴 기사를 일기로 작성할 때 이를 요약하고 추가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동상\_황수아** :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글만으로는 완성도가 높아보이지 않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점입니다. 특히 키워드를 뽑아놓고 이미지화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연계 된 점은?

**금상\_이수빈** : 뉴스일기를 적기 전에는 뉴스를 보고 대충 넘어가기만 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적고 난 후에는 뉴스일기를 써야 하다 보니 뉴스를 더욱 꼼꼼히 읽고 저의 생각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뉴스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상\_유예지** : 일단 세상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지식들과 사회의 문제, 해결 등 많은 부분을 알아가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또 저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능숙해졌습니다. 뉴스를 읽고 드는 생각을 글로 빠르게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깊어지고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동상\_이현우** : 기사를 볼 때 비판적 생각을 하게 되었다.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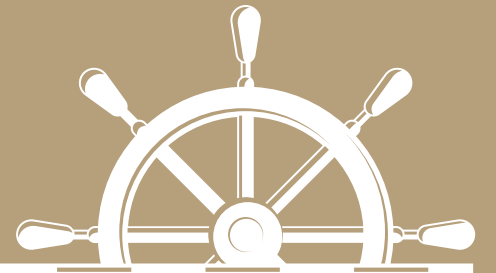
**금상\_이수빈** :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사다리'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다리처럼 뉴스읽기는 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은상\_조은솔** :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나만의 다이어리이다. 왜냐하면 여러 기사를 통해 내가 알아간 내용, 나의 생각, 느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동상\_이하람** : 내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일기  
**동상\_현미소** : "지식의 지름길"입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기사를 읽으면서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개인 | 청소년 수상작



No. 2  
발기일: 2023. 02. 20

뉴스 제목: 2023년 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청소년 기후행동 대회'의 중요성

뉴스 본문: 2023년 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청소년 기후행동 대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우려와 행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특히, 기후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4  
발기일: 2023. 02. 22

뉴스 제목: 우주에 대한 인간의 탐구 욕구

뉴스 본문: 우주 탐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구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행성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 탐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으며, 우리는 이제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03  
발기일: 2023. 02. 22

뉴스 제목: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

뉴스 본문: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30  
발기일: 2023. 06. 07

뉴스 제목: [한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

뉴스 본문: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28  
발기일: 2023. 05. 18

뉴스 제목: 2023년 1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뉴스 본문: 2023년 1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21  
발기일: 2023. 5. 21

뉴스 제목: "제로 슈거"의 중요성

뉴스 본문: '제로 슈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다. 이는 설탕 함량이 낮아 건강을 보호하며, 또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지구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26  
발기일: 2023. 3. 2

뉴스 제목: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뉴스 본문: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는 사회적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No. 9  
발기일: 2023. 05. 4

뉴스 제목: '제로 슈거'의 중요성

뉴스 본문: '제로 슈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다. 이는 설탕 함량이 낮아 건강을 보호하며, 또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지구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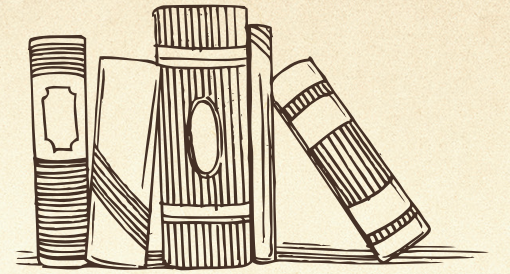
금상 | 이수빈

동상 | 이하람

동상 | 황수아

동상 | 황수아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조예림** :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결과물을 제출할 때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이 제출하였고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고 부듯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상\_김혜경** : 성실히 곡식을 키워 수확한 기분입니다. 뉴스일기를 쓰는 동안 행복했고 열매까지 맺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늦은 나이에 오롯이 나를 표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네요.

**은상\_조미나** : 감사합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아기를 재우고 매일같이 뉴스 일기장을 새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듯 힐링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며 한 권을 완성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어서 부듯합니다.

**동상\_이하송** :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상을 주시니 어려워도 끝까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동상\_박소형** : 뉴스일기 쓰는 동안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다는 부듯함과 함께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조예림** : 올해 3월 초, 삶의 권태감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뉴스일기 공모전을 보고 '아! 나 어릴 때 신문 스크랩 좋아해서 자주 기록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모전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공모전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은상\_조미나** : 평소에 사각사각하는 감촉으로 필사하며 독서노트 작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뉴스일기 공모전 소식을 접한 후 책을 읽고 난 후 독서노트를 쓰듯이 뉴스를 읽고 정리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백진영** : 공모전 홍보 사이트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뉴스를 읽고 나의 생각을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공모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동상\_박소형** :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혜정** : 친구가 추천 해줘서 하게 됐습니다.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조예림** : 저는 의도적으로 일기 양식에 있었던 10개의 분야를 골고루 읽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만 읽을 것을 우려하여, 특정한 분야의 뉴스 편식을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뉴스와 다른 나라 언론사의 뉴스도 보면서, 국제적인 이슈와 시각을 탐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은상\_백진영** : 대중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거나 비판할 점이 있는 내용을 다룬 뉴스를 주로 골랐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보다는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뉴스를 읽었는데,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은상\_김혜정** : 나의 관심, 최근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게 된 듯 합니다. 평소 스포츠, 사회, 해외뉴스 이런걸 즐겨 보는데 뉴스 일기를 쓰는 동안은 생각할거리가 많은 뉴스, 할 말이 많은 뉴스 위주로 둘러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골고루 보려 노력했지만 저는 일기이다 보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제 인생을 지나며 하고픈 말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펴서 하고픈 말을 기록하는 기분으로 뉴스를 고르고 적었네요.

**동상\_김혜정** : 한 분야의 기사만 읽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는 것이 시각도 넓힐 수 있고 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하게 읽으려고 했고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기사들을 선택해서 일기로 썼던 것 같습니다.

**동상\_이하송** : 저는 인터넷 뉴스 중 사회, 환경 부문 뉴스를 많이 봤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뉴스에 눈이 가더라고요. 뉴스를 고를 때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의 뉴스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조예림** : 저는 모든 기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분량과 상관없이 모든 기사를 정사각형 포스트잇 한 장에 요약 정리
2. 모르는 단어 정리 (영어, 한글, 전문용어 모두)
3. 여기까지는 통일하고, 후속 활동은 기사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학생들과의 소통, 설문, 관련 기사 조사, 반대 의견 탐색, 용어 더 알아보기, 인물 탐구 등)
4. 기사를 읽고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생각을 글로 써보기
5. 기사 특성상 자극적이거나 여러 영향들로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도서를 읽어보고, 필사하며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6. 일정 분야의 편식을 막기 위해 10개의 분야 모두 동일한 개수의 기사를 스크랩하기
7. 영어 뉴스도 읽음으로써, 외국 언론사도 구독하고, 서둘러도 영어로 나의 생각 써보기

**은상\_김혜경** : 즐기십시오. 대회라기보다는 뉴스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적어 내려가며 뉴스 일기를 즐겁게 썼습니다. 상을 떠나 즐기셨으면...

**은상\_조미나** : 독서 실천법으로 유명한 '본깨적'(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뉴스읽기 뉴스일기에도 적용하여 뉴스를 해석하였습니다. 포털 및 검색엔진, 책,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작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동상\_이하송** : 일기장 작성 가이드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가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동상\_박소형** : 뉴스일기와 책을 연계해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조예림** :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일기를 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긴 기사라도 포스트잇 한 장에 요약하였고, 후속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설문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오피니언이나 칼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사와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글로 써 보았습니다.

**은상\_조미나** : 공모 요강의 응모 주제에 적힌 '창의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작성하기 위해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동상\_김혜정** :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주제, 분야가 너무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않게, 나쁜 소식만 다루지 않게 다양한 기사를 읽고 쓰려고 했습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조예림** : 저는 뉴스 기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쓴 기사, 언론사별로 가지고 있는 시각과 지향점, 이해관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해, 지면 관계상 제한된 분량이라는 점 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도서를 찾아 읽어보고, 더 깊은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주거나 공감되는 글은 필사를 하여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였습니다.

**은상\_백진영** :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를 읽고자 노력하다 보니, 생소한 용어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추가 자료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나의 생각을 적는 것 역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은상\_조미나** : 접수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해서 뉴스일기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늦은 밤 육아에 지쳐 피로한 상태였지만 일기장을 작성하는 시간만큼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상\_박소형** : 규칙성.. 올해는 경제분야를 읽고 꾸준히 쓰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동상\_이하승** : 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어려웠어요. 생각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 일기 작성하는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더 폭넓고 다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니다.

**동상\_김혜정** : 생각들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쓰다 보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연계 된 점은?

**금상\_조예림** : 이 공모전을 보고, 대략 18년 전 쯤, 신문을 스크랩했던 어린날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큰 이유 없이 그저 신문을 읽는 것이 좋아서 스크랩을 했다. 종이 신문을 펼치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각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에 형광펜을 치고, 기사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기사는 내 노트에 붙여두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몇 권의 노트가 채워지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고, 자연스럽게 빈도가 줄어들었다. 꽤나 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기사들을 마주하니 마음속에선 이유모를 반가움이 가득 느껴졌다. 준비 기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원래는 일이 끝나면 힘들어서 누워서 쉬거나, 의미없는 영상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일상이 만족스럽지도 못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텍스트를 읽어나갔고 많은 것들을 기록했다. 평소에는 관심이 덜 했던 분야까지 뉴스를 읽고 공부를 하다보니, 내가 가진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뉴스 편집자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코카콜라 전 회장 더글라스 테프트가 한 유명한 말이다. 뉴스 일기를 준비하며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알게 되었다. 사회 곳곳에서 흐르는 '피', 기사를 쓰고 편집하고 발간하는 사람들의 '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까지. 뉴스일기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소중한 가치들이었다. 뉴스일기를 기록하는 시간을 통해 무기력하던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었고, 나의 정성어린 다이아리 세권을 택배로 부칠 때는, 이내 곧 돌아오겠지만, 약간의 아쉬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저 하나의 공모전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졌다. 다수보다는 소수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고통을 알게 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은상\_백진영** : 이전에는 뉴스 기사를 읽고 금방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써보는 과정을 거치자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서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룬 뉴스 기사를 여러 개 읽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상\_이하승** : 뉴스를 읽으면서 깊게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고, 같은 주제의 다른 뉴스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상\_박소형** : 글을 읽는 문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동상\_김혜정** : 이전에는 뉴스를 거의 안 봤는데 이제는 직접 뉴스도 찾아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게 된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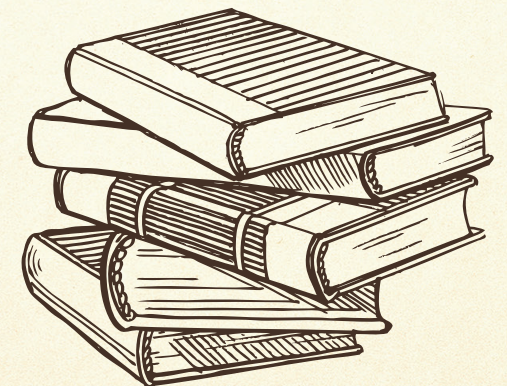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_조예림** : 나에게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 뉴스 일기 활동,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은상\_조미나** : '오늘은 읽음 내일은 맑음'입니다. 저에게 뉴스를 읽고 쓰는 일기는 맑은 내일, 건강한 내일, 행복한 내일을 활짝 피우기 위한 성장일기입니다.

**은상\_백진영** : 망치입니다.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깨고, 가치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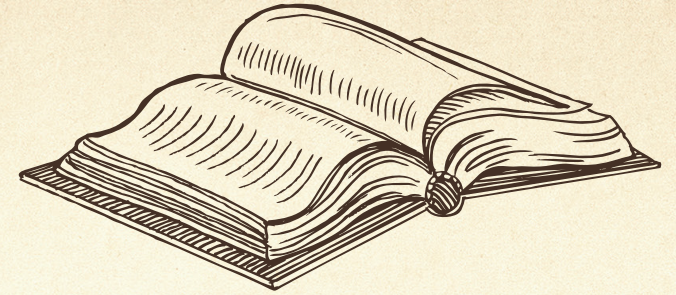
**동상\_박소형** : 나의 생각을 키우는 성장일지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이지현** : 먼저, 단체상 금상이라는 높은 상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라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원들한테 수상문자를 보여줬을 때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은상\_권다희** : 먼저 생각지도 못했던 수상을 하게 되어 놀랍기도 기쁘기도 합니다. 동생과 함께 책상에 앉아 이야기하며 뉴스일기를 작성했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니 부듯하기도 합니다.

**은상\_김은지, 신정은, 노지원** : 저희의 노력이 생각지 못한 성과로 돌아와 기쁩니다.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며 좋은 경험들 뿐 아니라 값진 결과까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출했던 뉴스일기를 인정받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또 봄과 여름에 열심히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으며 일기를 작성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가을에 수상을 하게 되어 뜻밖에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동상\_김민지** : 방송 기자와 피디를 꿈꾸는 저희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의미 있는 경험이자 업적으로 남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동상\_윤서진** : 경희여중에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뉴스일기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보답으로 수상을 하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해보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동상\_팀 데일리(김효원, 채소연, 심세빈, 김유림)** :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부듯합니다. 이번 공모전 참여의 기회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저희 팀원들과 꾸준히 만나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이지현** : 평소 다양한 서포터즈,대회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와중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평소 뉴스를 많이 읽는 동아리이기에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신서현, 김유나, 이기은, 정다은** : 국어 선생님의 추천과 친구들과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가벼웠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하더군요.

**은상\_권다희** : 처음에는 동생이 SNS를 통해 공모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김은지, 신정은, 노지원** :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같은 반 언니의 제안으로 다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팀명이 '아벤져스'인 이유도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시사상식을 꾸준히 쌓기 위해 기사를 많이 접했지만 한 사안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오래 갖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보게 되었고 뉴스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에 적합한 공모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꼭 맞는 공모전을 찾은 느낌이었죠.

###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_이지현** :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보았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경제 분야의 뉴스를 주로 본 것 같습니다. 상경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인 동아리니 진로 관련된 주제를 많이 선정한 것 같습니다. 뉴스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지 또 한 언론사에서만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은상\_권다희** : 저와 동생이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자신의 관심 분야'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회면을, 동생은 역사와 스포츠면의 뉴스를 많이 선택했어요.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도 고르기도 했고요.

**동상\_구나연** : 주로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관한 뉴스를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금상\_이지현** : 인포그래픽 등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글로만 요약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면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은상\_권다희** : 뉴스일기를 쓸 때, 한 가지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줄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만화나 그림, 신문 형식, 에세이 형식 등 뉴스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저희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로 작성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동상\_정윤선** : 6명의 팀원은 토의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달랐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팀이 아주 작은 모집단이라 생각하면, 저희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각 팀원들 전공에 가까운 의제와 기사 분야를 정하고, 일기 상단에 기재했습니다. 또 기사마다 각자의 색이 잘 드러나도록 의견을 나눠 적고 그 과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비판적 읽기는 물론이고, 각자가 담당한 기사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이지현** : 뉴스에 담긴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은상\_김은지, 신정은, 노지원** : 어느 한 언론사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여 시각을 넓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이슈를 하나의 기사로만 접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슈를 다각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대되는 입장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기사를 찾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꾸준히 반복한 것이 기사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상\_팀 데일리(김효원, 채소연, 심세빈, 김유림)** :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뉴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통계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기사에서 특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면서 뉴스 기사에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평소에도 뉴스 기사를 읽을 때 비판적으로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_이지현** : 바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학교일정과 겹쳐서 작성하는 데 있어 시간확보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뉴스 선정의 시간에 조금 더 힘을 쏟아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상\_권다희** : 처음에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특히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뉴스의 주제가 어려운 경우는 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접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내가 작성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편협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동생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갔습니다.

**은상\_김은지, 신정은, 노지원** : 아무래도 하나의 토픽에 대해 여러 개의 기사를 찾아 읽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정리 후 비교도 했기 때문에 틀을 잡고 전개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속도가 붙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이슈를 제대로 분석했다는 생각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즐겁게 뉴스일기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_구나연** : 눈에 확 들어오는 뉴스가 없을 때 '무슨 뉴스를 써야지...?' '옛날 뉴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며 어떤 뉴스를 써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이지현**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를 볼 때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 뉴스를 읽거나 볼 때 핵심 키워드가 뭔지, 관련문제는 뭐가 있을지 등 뉴스의 내용을 이해할 때 있어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은상\_신서현, 김유나, 이기은, 정다은** :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제목만 보고 지나쳤을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이게 옳은 것일까?' 생각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동상\_김민지** :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을 독자 입장에서 실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비판적 읽기는 무엇인지, 독자는 어떤 태도로 기사를 읽어야 하는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_윤서진** : 뉴스일기 작성을 계기로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기사를 읽는 습관이 생겼다.

**동상\_구나연** : 작성 전에는 그냥 뉴스 자체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기를 쓰지 않아도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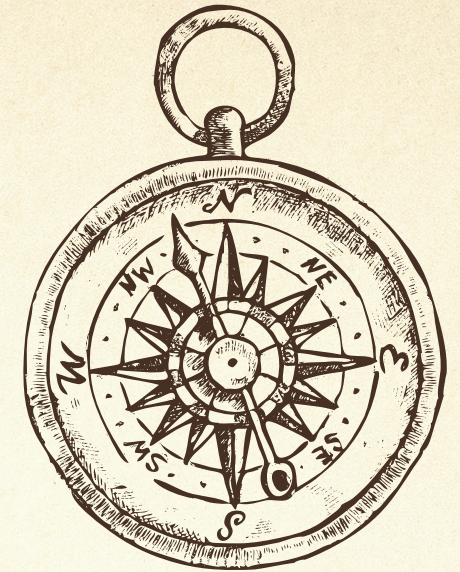
**금상\_이지현** : 뉴스를 통한 지식을 얻고, 뉴스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경험

**은상\_김은지, 신정은, 노지원** : 세상을 바르게 보는 법을 알려준 '제3의 눈'입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기에 때문입니다.

**은상\_권다희** :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소통 창구'입니다.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팀 데일리(김효원, 채소연, 심세빈, 김유림)** : 저희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세상을 통찰적이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이자 다양성과 이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팀으로 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뉴스를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타인의 말에 설득이 되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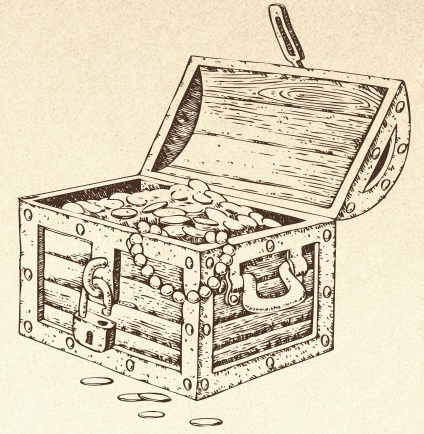
**동상\_김민지** : 올바른 언론 문화에 힘쓰는 독자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이다.











###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전영아** : 뜻밖의 상이라 깜짝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학생들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치킨(단체상)을 목표로 아침마다 뉴스 검색해서 일기 쓴 보람이 있네요. 단체상은 못 받았지만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희준** :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어 받게 된 것 같아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 또한 뉴스를 관심 있게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좋다.

**한중훈** : 고생한 담방초 6~1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배보라** : 감사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과 열심히 한 건데 지도자상을 받으려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원래 목표였던 치킨은 아쉽게도 못 받았지만 열심히 한 학생들과 뒤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육지현** : 다정중학교 1학년부 5층 교무실의 짝꿍 국어선생님 이가는 선생님의 소개와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미희** : 3월 올해 만난 6학년 아이들과 뉴스 글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문을 통해 <뉴스 읽기 뉴스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밖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이 공모전과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글쓰기 목적이 동일하였습니다. 이벤트 및 시상도 있어 학생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의논 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3. [나만의 TIP①]제5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지도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서연** : 처음에는 학생들이 뉴스일기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수상작을 계속 보여주고, 반 친구들의 뉴스일기를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일기를 쓰도록 지도했습니다. 반 전체가 뉴스일기를 공유했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내용,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김유진** : 매일 아침 활동 시간(주 2회)에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영** : 첫 번째 팁은 뉴스를 읽을 때 5W 1H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5W 1H란 Who, What, When, Where, Why, How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로, 뉴스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5W 1H를 통해 뉴스를 읽으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뉴스일기를 쓸 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일기는 정해진 양식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뉴스일기를 쓰면 재미있고 창의적인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Q4. [나만의 TIP②]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를 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인가요?

**이가는** :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기사 내용에 관련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기 내용은 '~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로 그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쓰인 인권에 관련된 기사와 이번 달에 쓰인 인권 관련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강릉 산불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읽기 등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교사가 관련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준비하거나 관련 개념 학습자료를 제공하면 아이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서진희** : 뉴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함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사고관과 가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훈** : 어떤 뉴스를 선택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다. 뉴스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미디어 시민으로서 뉴스를 어떻게 선별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시간을 들여 지도하고자 했으며, 개인별 특성과 역량이 다른 만큼 뉴스를 읽고 일기로 표현하는 방법도 자신만의 개성을 듬뿍 담아 표현하도록 지도하였다.

**유영희** : 단어(어휘력)의 의미 찾기, 문장 요약(1학년이어서 문해력과 글쓰기도 함께 성장시켜 보고자 함이었다), 사회 교과 용어로 자신의 생각 쓰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저 입으로 쉽게 나오는 말이지만 글로 쓰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특히 사회 용어를 활용해 작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뉴스는 더 눈에 읽히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뉴스를 읽어보고 스스로 뉴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전영아** :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쓰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사 선택부터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일이라 왜 그 기사를 선택했고, 기사를 보고 단순히 좋다/싫다(나쁘다)에서 확장된 사고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Q5.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한중훈** : 처음 아이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관심이 생겨서 그런지 흥미롭게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배보라** : 글쓰기를 귀찮아하고 꾸준히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학생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선정할 때 생각이 치우친 기사가 아닌지 생각하며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육지현** :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편이어서 아침시간에 다 못 쓴 친구들이 나중에 쓰기 버거워할 때 독려하는 게 미안하고 어려웠습니다.

**한미희** : 일기장 양식 신청기간이 끝나 학생별로 일기장을 제본해 주고 처음 하는 거라 선생님 손이 많이 갔네요. 매주 뉴스를 선정하고 QR코드를 출력해 주는 등. 가장 어려웠던 점은 포기하지 않도록 30개 이상을 완수하도록 학생을 독려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서연** : 반 학생들을 데리고 4월부터 뉴스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30회를 작성하기 위해 주 2회~3회 정도 뉴스일기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김유진** :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찾는 것을 학생들이 어려워하였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평소 관심 없던 주제의 뉴스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깨는 것이 힘들었어요.

**유영희** : 해를 바꾸어 일기장의 작성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3월에 시작해서 시상까지 늦어도 다음 해 2월 전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학년도 바뀌어 일기장의 마무리 지도가 어렵습니다. 이걸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상자 인터뷰

우수지도자



## Q6. 뉴스읽기 작성 지도를 하며 생긴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기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영아** : 우리는 사실 치킨을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일기 쓰게 된 동기에 쓰면 안 되니까 쓰면서 치킨 이야기는 쓰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다수가 '치킨을 받으려고'라고 썼더라고요.

**한종훈** :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오타니의 만다라트', '조코비치의 그랜드슬램'과 같은 기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읽었는데 그런 것을 읽고 아이들도 야구나 테니스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스포츠 기사를 읽고 저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기특하였습니다.

**배보라** : 사회 정치 수업을 할 때 장차관 임명 기사가 나오는 등 수업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현** : 저는 도덕교사로 우리 반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함께 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덕목 리스트에 맞추어 뉴스읽기 뉴스일기작성 활동을 진행했는데 학생들 중 진심으로 열심히 뉴스를 찾고 그림을 그리며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반대로 학급활동을 추진하는 저를 끈대라고 다른 반 학생에게 욕한 우리 반 여학생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미희** : 3월 공책에 뉴스 글쓰기를 하다 중간에 공문을 통해 공모전을 알게 되어 제본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사와 함께하는 뉴스 말고 일부 학생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본 뉴스로 글쓰기를 작성해서 기특했습니다.

##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로,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을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전서연** : 뉴스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뉴스를 찾아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뉴스를 읽다가 사회, 경제 부분에 관심이 생겨 그 관련 책을 읽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김유진** : 올해는 첫 경험 삼아 한 번 해보았으니, 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다시 도전하여 수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혜영** : 참여자들의 글쓰기 실력과 자신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뉴스일기장 작성 전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기를 꺼리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장 작성 후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를 즐기거나, 자신감이 있거나,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뉴스일기장 작성이 참여자들의 글쓰기 실력과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뉴스일기장 작성 전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의견을 가지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장 작성 후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뉴스일기장 작성이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Q8. 지도한 참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지은** : 학교 수업, 각종 대회, 동아리 활동, 교육 프로그램, 교내 행사와 방과 후 학원까지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학생들이 매일 한 편의 뉴스를 보고 일기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학생이 30회 이상의 뉴스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도록, 그 안에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신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일기를 쓰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 쌓여서 아이들의 생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 기대합니다.

**서진희** : 뉴스를 읽고 정리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 주고 즐거워해 주어서 선생님은 참 고맙고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 정말 자랑스럽다!

**정지훈** :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한 마음으로 꼭꼭 눌러쓴 너희들의 일기에는 오늘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담겨있는 만큼 민주시민으로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유영희** : 글쓰기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글을 함께 읽어 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함께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희준** : 정말 고맙고, 앞으로 뉴스 읽기를 생활화해서 배경지식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한종훈** : 선생님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담방초 6-1 아이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배보라** :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 지도자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미희** :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한 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 과정도 정말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김유진** : 내년에도 도전합니다!

**이혜영** :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면서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미래에 대해 꿈꾸는 등의 소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뉴스일기를 읽고 지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계속해서 쓰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단순히 공모전이나 학습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과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쓰면서 성장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 공모전 수상 명단

03





# 공모전 수상 명단

## 이사장상

수상명	성함	소속
이사장상	김단아	명지고등학교

## 개인 | 어린이 저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황선하	대전두리초등학교
은상	이호정	조암초등학교
	안소윤	월서초등학교
동상	김서원	대전두리초등학교
	고민설	인천경원초등학교
	최은서	장기초등학교
	박현준	서울언북초등학교
	엄수빈	서울천동초등학교
	김시우	하원초등학교
	이시은	월내초등학교

## 개인 | 어린이 중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박현아	서울언북초등학교
은상	김연아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
	이지원	평촌초등학교
	조은우	대구월서초등학교
동상	신연우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김세령	좌산초등학교
	임빈	서울중산초등학교
	석아영	산의초등학교
	윤채원	산의초등학교
	김주원	대전두리초등학교

## 개인 | 어린이 고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김소이	서울중산초등학교
은상	박소정	월곡초등학교
	황태희	대전두리초등학교
	안시울	안산중앙중학교
동상	박서윤	월곡초등학교
	안소이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류승은	호수초등학교
	김도겸	대구월서초등학교
	정윤서	안산중앙중학교
	김수연	살레시오초등학교

## 개인 | 청소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이수빈	경희여자중학교
은상	안예린	경희여자중학교
	조은솔	신기중학교
	유예지	옥길중학교
동상	황수아	세화여자중학교
	이하람	칠보중학교
	박정하	배곧해솔중학교
	김예서	삼일고등학교
	현미소	삼일고등학교
	이현우	대신중학교

## 개인 | 성인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조예림	제산초등학교
은상	김혜경	-
	조미나	-
	백진영	서울대학교
동상	김혜정	-
	이하송	-
	신해린	-
	권소영	-
	박소형	금옥중학교
	우명희	-



## 단체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이지현	대구동부고등학교
	김은혜	송현여자고등학교
은상	신서현	안산중앙중학교
	구미숙	연변한국국제학교
	김은지	아벤저스 팀
	권다희	-
	정윤선	신문nie소모임
은상	구나연	안산중앙중학교
	고경빈	안산중앙중학교
	윤서진	경희여자중학교
	김양현	송실대학교
	김민지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황혜림	대전글꽃중학교
	김효원	이화여자대학교 / 팀 데일리

## 지도자

수상명	성함	소속
우수지도자상	유영희	솔미중학교
	서진희	안산중앙중학교
	이혜영	헤이독서논술
	이지윤	산의초등학교
	이가은	다정중학교
	배보라	구름산초등학교
	전영아	남양주셋별초등학교
	육지현	다정중학교
	전서연	태동대초등학교
	엄희준	염작초등학교
	한미희	성남상원초등학교
	김유진	울산온양초등학교
	한종훈	인천담방초등학교
	정지훈	용화초등학교





더 많은 뉴스읽기 뉴스일기  
수상작 보러 가기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자세히 알아보기

